SK 텔레콤, 2018 년 2 분기 실적 발표

- **매출 4 조 1,543 억원, 영업이익 3,469 억원, 순이익 9,143 억원**
- **전 분기 대비 매출 0.7% 감소, 영업이익 6.6% 증가, 순이익 31.9% 증가**
- **기존 회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0% 감소, 영업이익 16.7% 감소, 순이익 47.6% 증가**
-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결과 해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1.2% 달성**
- **확장성 뛰어나고 주파수 간섭 없는 3.5GHz 대역 5G 주파수 최대폭 확보**
- **통신 外 미디어 • e 커머스 • 보안 • AI 등 아우르는 종합 ICT 기업으로 탈바꿈**

[2018.07.27]

SK 텔레콤(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 년 2 분기 매출 4 조 1,543 억원, 영업이익 3,469 억원, 순이익 9,143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7 일 밝혔다.

미디어 사업 매출 증가, 11 번가 실적 개선 등 자회사는 지속 성장했으나, 회계기준 변경 및 이동통신사업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4%, 18.0% 줄었다. 순이익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회계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16.7%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47.6% 올랐다. K-IFRS 1115 호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176 억원, 58 억원, 16 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와 비교 시 매출은 0.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6%, 31.9% 늘었다.

이동통신사업 수익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및 할인율 상승, 취약계층 요금 감면, 서비스 장애 보상금액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SK 텔레콤은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전 영역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고객의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 추천, 약정제도 · 로밍 서비스 · 멤버십 전면 개편, 렌탈 서비스 출시에 이어 최근에는 온 가족의 데이터는 늘리고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T 플랜' 요금제도 내놨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를 대변하는 지표인 해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2%를 기록했다. SK 텔레콤은 올 하반기에도 고객 가치를 향상한 상품 ·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중심 경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SK 텔레콤은 지난 6 월 5G 주파수 경매에서 최적 대역을 차지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SK 텔레콤은 3.5GHz 대역에서 최대 총량인 100MHz 폭을 확보했고, 해당 대역은 주파수 확장성이 뛰어나고 간섭 이슈와도 무관한 '노른자위'로 평가된다.

지난 2 분기 SK 텔레콤은 통신을 넘어 미디어 · 보안 · e 커머스 · AI 등을 아우르는 종합 ICT 기업으로 변화를 가속화했다.

우선 미디어 사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IPTV 매출은 3,060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이는 가입자 확대, 유료 콘텐츠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모바일 IPTV '옥수수'도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국내 대표 모바일 미디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6 월 말 기준 '옥수수'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1% 늘어난 914 만 명, '옥수수' 월 순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626 만 명에 달했다.

또, SK 텔레콤은 지난 5 월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ADT 캡스' 지분 100%를 1 조 2,760 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성장성이 높은 보안산업에 진출한다. SK 텔레콤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안 사업에 AI · IoT ·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결합해, ADT 캡스를 차세대 보안사업자로 키워낼 계획이다.

11 번가는 5 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며, e 커머스 시장에서 1 등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11 번가 2 분기 직접손익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하는 등 11 번가 수익도 개선됐다.

AI 영역에서는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휴처 확대, 인재 영입, 원천기술 확보 등 전방위에 걸쳐 경쟁력이 강화됐다. SK 텔레콤은 최근 AI 와 조명 기능을 결합한 '누구 캔들'을 출시하고, AI 관련 석학들을 영입해 연구 전담조직인 'AI 리서치센터' 진용을 완비했다. 또한, SK 텔레콤은 AI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가속 솔루션'을 개발해 자사 AI 서비스 '누구'에 적용했다.

SK 텔레콤 유영상 Corporate 센터장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통신업의 체질을 바꾸고 종합 ICT 기업으로 도약해 근본적인 사업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억원)

구분	18 년 2Q (IFRS15)	18 년 1Q (IFRS15)	증감률 (QoQ)	17 년 2Q (舊)	증감률 (YoY)	18 년 2Q (舊)	증감률 (YoY)
매출	**41,543**	**41,815**	**△0.7%**	**43,456**	**△4.4%**	**41,719**	**△4.0%**
영업익	**3,469**	**3,255**	**6.6%**	**4,233**	**△18.0%**	**3,527**	**△16.7%**
당기순익	**9,143**	**6,934**	**31.9%**	**6,205**	**47.3%**	**9,159**	**47.6%**

* K-IFRS 감사전 기준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억원)

구분	18 년 2Q (IFRS15)	18 년 1Q (IFRS15)	증감률 (QoQ)	17 년 2Q (舊)	증감률 (YoY)	18 년 2Q (舊)	증감률 (YoY)
매출	**29,418**	**29,885**	**△1.6%**	**31,096**	**△5.4%**	**29,400**	**△5.5%**
영업익	**3,683**	**3,693**	**△0.3%**	**4,623**	**△20.3%**	**3,674**	**△20.5%**
당기순익	**2,198**	**3,644**	**△39.7%**	**3,141**	**△30.0%**	**2,192**	**△30.2%**

* K-IFRS 감사전 기준

<끝>